

지역혁신동반성장 브리프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CRC 401-2호

발행인 이희용

작성인 강지현

편집인 배수민

<http://www.rigc.re.kr>

| 요약

- 배경 및 목적** 청년은 향후 지방을 이끌 핵심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중 동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에서의 20대 청년층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어 경산시에서도 이를 대응할 방안이 요구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첫째, 청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 경산시 청년의 생활 관련 실태 조사¹⁾ 가운데 주거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일반적 현황 및 거주 생활 양식', '청년 생활 관련 욕구(needs)'로 정리함. 둘째,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사례 시사점을 제시함. 셋째, 종합 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여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결론 및 제언** 첫째, 공유 주택 조성 시 주거 복합공간(근린시설+주거시설)의 조성 과 민간 참여(민간 건축가 및 사회적 기업 등)를 장려할 수 있는 연계적 장치의 마련 과 활성화되어야 함. 둘째,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시 청년을 우선하되, 지역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유희공간(부지)의 선행 조사 및 확보와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조성 사업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본래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 관련 대안공간(시설 제공 등)과 정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경산시 청년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1) 「경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24.01.19) 가운데 일부 내용 발췌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경산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의 시사점]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연구원
강지현

1. 들어가며

- 청년은 향후 지방을 이끌 핵심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 동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에서의 20대 청년층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어 경산시에서도 이를 대응할 방안이 요구됨
-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환경, 인적 네트워크 기회 부족,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 바, 지방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청년이 지방에 머물며 다양한 활동과 생활을 하는 공간적 범주 즉,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서 제시된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한 주택 재고(공급)형식이 아닌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주거정책이 제공되어야 함에 따라,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의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적 트렌드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식의 시대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산시 청년의 생활 실태 조사 내용²⁾ 가운데 주거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및 거주 생활 양식’, ‘청년 생활 관련 욕구(needs)’를 토대로 관련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이는 경산시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향후 주거 공간에서 청년의 다양한 소통·교류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향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정주를 기대함

2) 「경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24.01.19) 가운데 일부 내용 발췌

2. 지방시대 대응을 위한 청년 주거 안정

가. 청년 지방이탈 현상 가속화

- 청년은 향후 지방의 핵심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 동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에서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많이 발생 되고 있음³⁾
-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환경, 인적 네트워크 기회 부족,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 및 정주 여건으로 꼽혔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시급함

나. 청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및 특성

- 청년은 기성세대의 사회적 구조와 인생 성공 철학에 맞서, 일하는 방식 등 삶의 방식을 본인의 개성에 맞게 창조함
- 또한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우선시하여,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청년은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직업의 종류, 근로 형태 등 일자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인 효용 극대화를 이룬다고 함(김현우, 2020)
- 따라서 청년은 사회적 트렌드 및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세대이므로 이들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새로운 방식의 시대적 해법 마련이 요구됨

다.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

- 주거 문제는 인간이 누려야 할 의(衣)·식(食)·주(住)에 해당하며 청년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주거 지원은 단순한 주택 재고(공급)형식으로 보다는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주거정책이 제공되어야 함⁴⁾
- 이에 청년이 지방에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어메니티와 현 시점에서 변화된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지역통계청, 2022년 4분기 및 연간 지역 통계 동향

4) UN은 주거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여 '주거권'을 강조함(하성규, 2021, 국토시론-청년주거정책의 과제)

- 이는 정책적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 특히 지역 청년의 생활 실태와 욕구(needs)가 중점으로 다뤄져야 함

3. 경산시 청년의 생활 실태

가. 일반적 현황 및 거주생활 양식

- (일반적 현황) 경산시 내 청년은 약 26만 7천명('22. 12.)으로 30대 청년층 대상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됨('22년 기준, -550명)
- (거주 및 경제 현황) 1인 가구 비중이 61.3%로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청년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48.9%)이 높게 나타남
- (일자리 현황) 구직활동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 도시(ex, 대구 등) 대졸 구직 신청이(37%) 높게 나타남

나. 청년 생활 관련 욕구(needs)

- (유기적 연계 및 지속성) 청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이 진행되지만, 해당 정책 간 연계를 통해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함
- (유희공간 활용) 경산시 내 방치 공간이나 대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청년 활용 공간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함
- (소통 및 교류 공간) 행사나 회의 등 주체 간 콘텐츠가 연계가 가능한 쉐어하우스 및 숙박 시설 확충이 필요함⁵⁾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이 정책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 타 지역 청년 간 교류를 위해 청년의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전략적 홍보 방안) 청년 대상의 다양한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려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수단 및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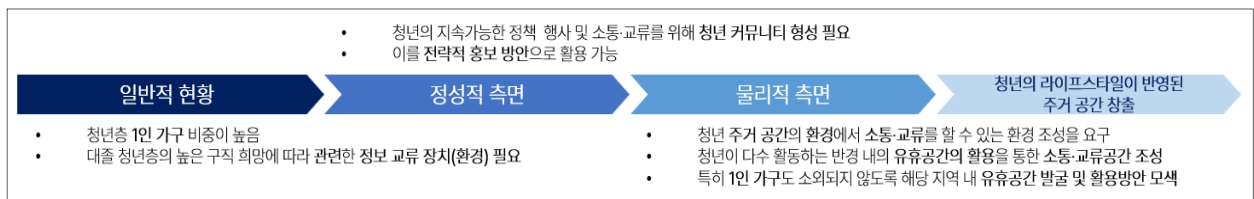
다. 종합 정리 및 사례 선정 주안점

- (일반적 현황) 경산시 청년은 '30대 청년층 인구 유출'과 '1인 가구'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평

5) 이에 관련하여 청년문화 생활(문화 콘텐츠)은 청년의 정서적 안정감 및 지역 유대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함(「경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중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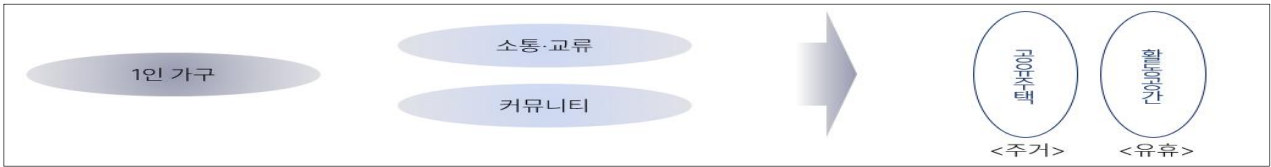
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됨. 또한 임금 등 원하는 환경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졸 청년층이 인접 도시로의 구직 신청’이 높게 확인됨

- 경산시 대졸 청년층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구직 희망이 높으나 원하는 환경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인접 도시로의 유출이 야기되는 상황이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 일자리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등을 빠르게 교류·확산할 수 있는 장치(환경)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⁶⁾
- 아울러 3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높게 나타난 바, 해당 연령층은 향후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연령층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정성적 측면) ‘청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이 서로 간 지속적인 연계’와 ‘전략적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이나 행사 등 ‘소통과 교류’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성화’의 요구가 확인됨
- 현재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년은 다양한 정책 간의 연계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따라서,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 홍보와 더불어 정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기 정책의 개선을 통한 고도화 등의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발굴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물리적 측면) 경산시 및 학교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통해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 및 ‘거주 공간 내 청년 간 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ex, 셰어하우스 및 숙박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은 주거 공간의 환경에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산시 내 청년이 다수 활동하는 반경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간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서 1인 가구 비율이 높다고 나타난 바, 기 거주하는 공간 환경 형태가 셰어하우스 등 청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1인 가구)일 경우 이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해당 지역 내 공간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경산시 청년 생활 실태의 종합 정리

6) 관련 인터뷰에 의하면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일자리(취업) 정보 등 교류의 어려움을 토로함(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그림 2〉 사례 선정을 위한 분석 주안점

4. 청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 사례

가. 사례 선정 및 제시

□ 앞서, 단계별 사례 선정 주안점 〈그림 2〉에 의해 도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그림 3〉⁷⁾

주요 내용	결과 / 성과
<p>청년커뮤니티형 공유 주택</p> <p>SHARE US(19) : 고시촌 등 재생건축을 통한 공유형 사회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촌의 공실에 의한 지역 소멸화 및 주거 관련 기반 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작함 건물주와의 5년 장기 임대를 체결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어주는 대신 개보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Win-Win 방식으로 추진함 중에 따라 2.3-6 인실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유주거 형태의 병용 제공함 스터디룸 및 모임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 마련함 반상회 개념의 입주자 모임 등 입주자 교류를 촉진함 <p>창안생원(19) : 도시재생사업 기금으로 마련한 복합형 공유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도가 높고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 기금으로 탈바꿈한 공간임 공유공간 내 주방, 작업실(세탁실), 테라스 등 원룸 내 구상하기 어려운 공간을 별도 공유공간에 마련하여 더 좋은 도구와 함께 이유로운 사용을 하도록 구상함 입주민이 직접 자치회를 꾸리고 대표자를 선출함 공간운영사는 커뮤니티 자원임을 따라 무려 입주자 운영회와 책임을 들는 콘텐츠 제작 입주민에게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주의 권고를 주어 창업자들의 휴식, 만남, 업무, 커뮤니티 바 등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의 운영으로 진행함 <p>페어런스(22) : 구독형 공유 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유 기성으로, 일정한 기간 구독하여 사적 공간을 존중 받고 공유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는 느슨한 임대 문화를 추구함 구독 시 구독자 대상만의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함 데이, 나이트(24시간) 구분을 통한 2부제를 운영함 서재, 홈 바 카페, 홈시네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공간을 조성함 일시적 무료 체험 서비스를 통해 선경험에 따른 마케팅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간 네트워킹을 통한 홍보로 인해 지속적인 입주자 이루어짐(24 기준, 5호 개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교육활동 참여 등 활동의 폭을 넓힘(계획(16)) 청년 32명이 거주함(21 기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조성 사업을 통해 임대료 등의 적실한 시세를 유지하여 렌트리베케이션 현상 방지에 기여함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국민 제검도를 제고함 리온지 구독을 통해 취향이 비슷한 세로로 사람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가능 공유형 공간이지만 사전 구독 신청을 통해 출입자의 신원이 확실해지므로 보호된 공유공간 형성 공유 구독 서비스 신청 초과로 인한 대기점수면 반납(24 기준)
<p>유유공간을 활용한 청년 활동 공간 조성</p> <p>고려대 안양동 캠퍼스타운(17) : 반 성가 등으로 인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 쇠퇴 및 공실 등 대학가의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가 현안 해결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초기-심진-성장의 단계별 창업스튜디오 지원 어울림 센터를 통해 청년창업가 및 주민 소통을 위한 소동방, 북카페, 공동작업장 등을 마련함 스타트업이유상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함 만천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임대 도로포장 및 방범(CCTV) 기능을 강화함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환경, 지역 축제 각종 문화행사들 연계함 <p>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18) : 지역 주민 대상 생활 SOC 시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철거를 통해 동네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유수공간을 마련함 마을 주차장 해소를 위해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가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 문화예술사실이 부족한 지역과 청년의 지역기여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거점 및 청년거점 공간을 조성함 <p>서울창업센터 권역오광 - 신원동스튜디오(20) : 고시촌, 권역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구가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안별 건물 3층 10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여 조성한 청년 전용 문화공간임 거실, 서재, 공용 3개의 공간을 무료 개편 및 대관 청년을 위한 공복함 프로그램을 운영함(연간 약 800여건)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주거, 문화예술, 마음건강, 취업(직무역량강화), 공동 관심사 등 청년인구 비율 전국 1위(41%)인 권역구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62.4%로,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며(특화사업), 청년 네트워킹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개 기업, 206명의 창업가를 육성하며, 대학 연계 창업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함(20 기준) 이는 또한 105억원의 매출, 117억 원의 투자 유치로 성공함(20 기준) 빈집 매입 필지는 409필지로 집계됨 임대주택 공급은 296호로 집계됨 SOC 시설(사회간접자본) 조성은 47개소로 집계됨 사회복지관, 문화재단, 청년단체 등 17개 청년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킹인 '관역유스크루' 에도 참여하여 기관 공동사업을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창관상 수상(22 기준) 자체 사업 및 외부 공모 사업에서 4차례 수상(23 기준, S등급 최우수기관상 수상) 센터 가입 청년 수는 5만 2,000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청년이 가입하여 이드 간 청년성취 정보 교류를 활성화함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혜가 가능함

〈그림 3〉 청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의 주요 사례

7)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시대 대응을 위해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성과 확인을 위해 현재 시점(24)에서 5년 전(19) 전후로 한정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의 연계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유공간 대상만의 활용뿐 아니라 이에 인접한 공간적 변화를 꾀하게 된 배경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사례조사 함

나.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 ‘청년 커뮤니티형 공유 주택’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일 경우 둘 다 소통·교류 및 커뮤니티가 잘 행해지고 있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이에 전자는 지역 슬럼화 및 청년(대학생)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민간 재생 건축⁸⁾의 경우고, 후자는 청년(혹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킹, SOC 시설 조성 및 도시환경 정비 등 생활 복합형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음
 - 공유 주택을 조성하는 민간 공간운영사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입주자의 지속적인 공간 활용 행태를 고려하고 입주민 대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관리적 차원에서 입주민의 다양한 적응과 활동을 돕고 있음
 - 또한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자치회를 꾸리고 공유공간 활용(휴식, 만남, 업무 등)에 대한 주도권을 주어 청년 주도 커뮤니티의 생태를 확보함
 - 유휴공간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창업, 청년 문화 거점 조성 등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철거 등을 통해 동네 정원,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청년과 더불어 지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공유형 주택이 건립된 대상지가 고시촌, 원룸촌으로 확인된 바, 학업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 내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부족한 기반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통한 활력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례로 민간 공간운영사와 건물주와의 장기 임대를 통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어주어 민간 공간운영사-건물주-입주자(청년)의 상생 효과가 나타남
 - 근린 공간(상업 등)과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형 공유 주택을 조성하여 임대료의 적절한 시세를 유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현상⁹⁾을 방지함
- 아울러, 공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안공간을 통해 원룸에서 부족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
 - 일례로 ‘구독형 공유 거실’로써 기존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대학생)에게 넓고 쾌적한 공유 거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구독형 서비스이므로 확실한 신원의 사람들과 취향을 교류할 수 있음
 - 또한 ‘신림동 쓰리룸’은 지자체가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공간을 임대 조성하여 거실, 서재, 공방 등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서비스 등 매년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1인 가구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이슈(주거, 문화예술, 마음 건강, 취업 등)를 공유 및 확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청년 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함

8) 재생 건축이란 과거 건축물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형 또는 그 일부를 디자인 요소로 살려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9)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함

5. 결론 및 제언

- 상기 사례의 종합 분석 및 시사점을 토대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유 주택 조성 시 청년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복합공간(근린시설+주거시설)으로 조성하고, 공유 주택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민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 건축가(사회적 기업)등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연계적 장치의 마련 및 활성화 되어야 함
 - 이는 건물주와 민간 공간운영사의 장기 임대 체결을 통해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내어주는 주고, 입주민을 위한 적응 및 활동을 돕는 등 공유 주택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도 촉진할 수 있음
- 둘째, 청년 활동 공간 조성시 청년을 우선하되, 지역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에 준하는 유희공간(부지)의 선행 조사 및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조성사업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17)'일 경우 대학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청년과 주민들을 위한 소통방, 문화가로 조성(보행친화 환경), 각종 지역 축제·행사를 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범위의 설정 시 지역 활성화 등 연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함
- 셋째, 본래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 관련 대안공간(시설 제공 등)과 정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경산시 청년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구독형 공유 거실'이나 '신림동 쓰리룸'일 경우 제한된 원룸 공간을 대안할 수 있으며, 특히 '신림동 쓰리룸'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거 서비스나 취업 등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 시점과 더불어 향후 청년을 위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김현우(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기 결정권 선호와 불안정 속의 안정 선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선(2017), 청년의 주거지원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 국토연구원

「경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24.01.19.)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경제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22.11.28., vol. 58)」

이유나 기자, 「지역 청년 이탈 중앙정부가 구조적 문제 풀어야」, 중도일보, 2023.05.11. 기고,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30504010001502> 2024.01.24. 검색

김다운 기자,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막아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2023.03.17. 기고, <https://www.youthassembly.kr/news/694310> 2024.01.24. 검색

길애경 기자, 「수도권이라 간다고?」 지역 대학생들의 이유있는 '이탈 항변」, hellodd.com, 2022.06.29. 기고,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63> 2024.01.24. 검색

승동엽 기자, 「홍물로 방지된 빈집, 녹색 힐링공간으로 탈바꿈」, Landscape Times, 2021.03.31. 기고,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7>, 2024.02.02. 검색

정연솔 기자, 「홀로 선 청년들의 쉼터, 신림동쓰리룸」, 2022.11.13. 기고,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32>, 2024.02.02. 검색

최한영 기자, 「(피플)현승현 선랩 대표 공간재생으로 사람관계 복원」, 뉴스토마토, 2016.01.07. 기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3567>, 2024.02.02. 검색

이복열 기자,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인기 높아」, 관악저널, 2022.09.21. 기고, <http://xn-zb0b20fznw5rc.kr/16626>, 2024.02.05. 검색

브런치 스토리, 2019.08.30. <https://brunch.co.kr/@thequestbook/87> 2024.01.24. 검색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69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4.01.29. 검색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1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4.01.29. 검색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011240002118>, 한국일보 경제, 24.01.30. 검색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758129&memberNo=38249019>, 24.01.30. 검색

https://www.ibookee.kr/index.php?mid=media&document_srl=16864, 아이부키, 24.02.02. 검색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5/10505110600002021051710.jsp>, 관악구청, 24.02.02. 검색

<https://news.seoul.go.kr/citybuild/build/vacant-house-project>, 서울특별시, 2024.02.02. 검색

<http://www.campustown.or.kr/>,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2024.02.02. 검색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435>, 서울특별시, 24.02.02. 검색

https://www.ibookee.kr/index.php?mid=project_jangan, 장안생활, 2024.02.05. 검색